‘1000만 관광 도시’ 사람 몰리니 여수 바닷길·하늘길도 넓어졌네

여수~제주간 항공편이 수년 만에 평일 운항을 재개하는 등 대폭 확대됐다. 지난달 11년 만에 여수~제주간 뱃길이 열린 이후 하늘 길까지 확장되면서 ‘1000만 관광도시’ 여수의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일 여수시와 대한항공 등에 따르면 그동안 주 2회 운항 중인 여수~제주간 항공편이 이달부터 주5일 운항에 들어갔다. 제주에서 여수공항으로 출발하는 항공편은 월 ·수· 토요일 오후 1시 10분, 금·일요일은 오후 5시 50분에 출발한다.

여수에서 제주공항으로 이동하는 항공편은 월 ·수· 토요일 오후 2시 30분 출발하고, 금요일과 일요일에는 오전 9시 10분 출발한다.

제주행 항공요금은 주중 6만 2100원 주말 7만 9100원이다.

특히 이번 확대 취항을 기념한 각종 요금할인 이벤트를 적용할 경우엔 최저 3만 5000원대에 제주행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다. 운항시간은 50분 안팎이다.

이번 여수~제주간 항공편의 평일 운항은 지난 2007년 아시아나 항공이 시행 2개월 만에 탑승률 저조 등으로 폐지한 이후 8년여 만에 재개된 것이다. 여수~제주간 하늘 길 확대로 전남 동부권 지역

여수~제주 항공편 주 5회로
지난달 뱃길 취항 재개 이어
관광객 접근성 대폭 향상
올 1300만명 유치 무난할 듯

민들의 제주간 교류확대는 물론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동부지역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항공 제주행 여객편 확대에 따라 여수~김포간 운항은 하루 2편 감축됐다. 아시아나의 김포행 항공편 운항은 기존 시간대로 운항중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엑스포 이후 연간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관광 인프라 확대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통편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올해 목표인 관광객 1300만명 유치도 무난할 것으로 보이며, 2000만 관광객 시대에 대비한 여수의 관광 정책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와 제주를 잇는 뱃길도 끊긴 지 11년 만에 다시 운항을 재개했다. ㈜한일고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여수~제주 항로에 한일골드스텔라호를 취항시켰다. 지난 2004년 12월까지 운항하고 중단된 이후 11년 만에 바닷길이 열린 것이다.

여수-제주 간 여객선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남해고속에서 운영하는 카페리호가 운항됐으나, 이용객 감소에 따른 적자 등을 이유로 운항이 중단됐다.

11년 만에 여수~제주 뱃길을 허가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은 엑스포 부두를 이용하는 덕분에 타지역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연간 40여만명의 여객을 수송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수-제주 간 항로를 운항중인 한일골드스텔라호는 지난 1995년 7월 28일 일본에서 건조된 배로 정원 823명, 승용차 31대, 화물차 288대를 실을 수 있는 1만 1588톤급 대형 여객선이다. 여수에서 제주까지 200km 항로를 하루 1회 왕복하며 일주일에 한 번은 안전점검을 위해 휴항한다.

여수에서는 오전 8시 20분, 제주에선 오후 4시 50분 각각 출항해 5시간 안팎이 소요되며 운임은 성인기준 5만5000원부터 33만원까지, 승용차는 평균 11만원부터 다양하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세계 21개국 전복 전문가 250여명 여수로

국제전복심포지엄 개막
양식 기자재전시회도 열려

세계 21개국 전복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해 전복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5일 여수에서 개막했다.

전남도는 5일 “세계전복학회 주관으로 6일까지 이틀간 여수 엠블호텔에서 제9차 세계전복심포지엄이 열린다”고 밝혔다.

세계전복심포지엄은 3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국제학술대회로 2013년 제8차 심포지엄은 호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호주, 남아프리카, 일본, 멕시코, 중국 등 해외 21개국 250여 명이 참석한다.

심포지엄 기간 중에는 세계 전복 연구 국제학술논문 발표, 전복 양식 기자재, 전복요리 전시 및 시식회 등 부대행사도 함께 열린다. 국내·외 17개 업체가 참여하는 전복 양식 기자재전시회는 국내 기자재산업을 해외에 소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 전복요리 전시 및 시식회를 통해 국내산 전복의 맛을 알리는 자리도 마련했다.

이어 9~10일에는 국내외 전복 전문가 70여명이 완도 전복 양식 현장을 방문해 전복 치패를 생산하는 종묘 배양장, 전복을 양성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 완도전복주식회사 등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 과정을 국내외 전문가에게 소개하는 현장 견학도 실시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전복 생산량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생산량의 97%를 전남이 맡고 있다. /윤현석기자chadol@

‘오감만족 희망밥차’ 봉사 동여수노인복지관(관장 정금칠)과 구봉로타리 클럽(회장 송대수), 여수 우체국(국장 이진섭), 배울학 어린이집(원장 정숙)이 공동으로 최근 여수시 종화동 해양공원에서 지역 어르신들에게 ‘오감만족 희망밥차 무료 효도급식’ 봉사를 하고 있다.

여수시 ‘정부3.0 민원실’ 우수기관 선정

카페형 쉼터·북카페 등 조성
시민들에 편안함 제공 호응

여수시가 정부3.0 국민행복 민원실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5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자치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3.0 국민행복 민원실’ 평가에서 여수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여수시는 오는 11월 20일 열릴 제6회 민원공무원의 날 행사에서 정부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

정부 3.0 국민행복 민원실은 행자부가 지자체 민원실의 시설 및 환경 등을 개선해 국민편의성을 높이고 국민이 행복한 민원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전국 공모방식으로 평가·선정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240여개 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각 시도별 심사를 거쳐 선발된 대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국디자인진흥원과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3차 심사를 통해 최종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여수시는 이번 심사에서 민원실 접근성과 민원처리 정보제공, 편안한 공간구성과 민원공무원의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취약계층 민원인에 대한 배려 등 6개 분야 21개 항목 전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시청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이 민원 상담을 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특히 ▲편의성을 높인 민원처리 공간과 분리된 카페형 분위기의 고객쉼터 ▲친환경 플랜트 박스 실내조경 설치와 북카페 ▲고객 도움벨과 건강관리코너 등 다양한 테마공간을 조성해 민원인에게 편의성은 물론 편안함을 제공한 점은 심사위원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에도 행자부로부터 ‘민원서비스 우수기관’인증을 획득하는 등 2년 연속 우수기관 표창이라는 타이틀도 갖게 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여수고용청, 한달간 접수
추가징수·형사고발 면제

여수고용노동지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 해결에 나선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여수고용청은 건전한 실업급여 수급 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10월 한 달을 실업자 구직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 자진 신고자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100%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할 방침이다.

앞서 여수고용청은 지난 9월 전남 동부권(여수·순천·광양·고흥·보성)지역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벌여 191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을 포함한 2억여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부정 수급자 중 금액이 크고 악의적으로 부정 수급 등에 나선 수급자·사업장 관련자 등 5명은 형사고발 조치하기도 했다.

이번 부정수급 단속은 여수고용청이 고용보험 일용근로 정보, 4대 사회보험 정보, 국세청 정보, 부정수급 제보 등 실질적인 정보를 활용한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김영기 여수고용노동청장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와 시민 제보 등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수급액을 2배로 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고용청은 부정수급 제보자의 비밀보장과 함께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소정의 포상금(부정수급액의 20%)도 지급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한화 아쿠아플라넷 지역대학과 공동작품전

국내 아쿠아리움 중 두 번째 큰 규모를 자랑하는 여수 한화 아쿠아 플라넷이 지역 대학과 공동 작품전을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는 5일 “목포대학교 미술학과와 공동으로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뉴 아틀란티스로의 초대’ 작품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작품전은 ‘헤라클레스의 기둥 너머’, ‘아르카디아의 낙원을 찾아서’, ‘판타스 마고라스 세계로의 초대’ 등 세 개의 테마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 회화, 조소, 업사이클링 작품 등 총 67점의 전시작은 다양한 지구 생명체들을 주제로 목포대학교 미술학과 재학생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한화 아쿠아플라넷 여수 관계자는 “아쿠아리움과 미술작품의 아름다운 조화가 관람객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